

STOP

TB

ST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결핵기술자문위원회의 활동

in the

강미경(결핵연구원 기술협력과장)

WHO

WESTERN PACIFIC REGION



세계보건기구의 초청으로 김상재 결핵연구원장이 6월 4일부터 3일간 중국의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결핵기술자문위원회(TAG, Technical Advisory Group) 제2차 회의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타그미팅으로 불리워지는 동 국제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해지고 결핵관리에 관한 각종 주요 현안들이 동 회의를 통하여 거론, 정책 제안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동 위원회에 대한 신임도가 높아지고 있어 간략하게나마 그 기능과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은 전세계 결핵의 1/3이 이 지역내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결핵환자 발생신고가 1년에 1백만명이 넘는 등 결핵이 다시 증가함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결핵위기상황”으로 선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핵상황의 악화는 이 지역 국가의 경제발전과 빈곤퇴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으며 국가간의 상호협력만이 지역내 결핵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서태평양지역의 결핵퇴치(Stop TB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라는 특별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태평양지역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세계보건기구가 심사숙고하여 선정한 결핵전문가 9명으로서 우리 나라의 김상

재 결핵연구원장을 위시하여 일본의 모리 도루 결핵연구소장 그리고 낸시 빈킨 박사(미국), 야프 브룩만 박사(네덜란드), 도날드 에나슨 박사(캐나다), 류 페이룽, 나가다니 히로키(일본), 이안 킬리, 알베르토 로무알데스 등 결핵분야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분들이 활동하고 있다.

매년 각 국가를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 9인의 기술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대표급 보건관료와 국가 결핵관리, 국제원조기구사절 등이 초청되어 결핵퇴치 특별대책(STOP TB Special Project)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을 파악하고 국가간 협력부분과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차회의는 2000년 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으며 서태평양 지역국가를 결핵위험부담이 높은 순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고 상위군 순으로 참가하고 있으므로 금년에는 제1군 결핵고위험, 고부담군인 중국등 7개 국가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는 제2군으로 내년에 참가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 결핵위험부담별 국가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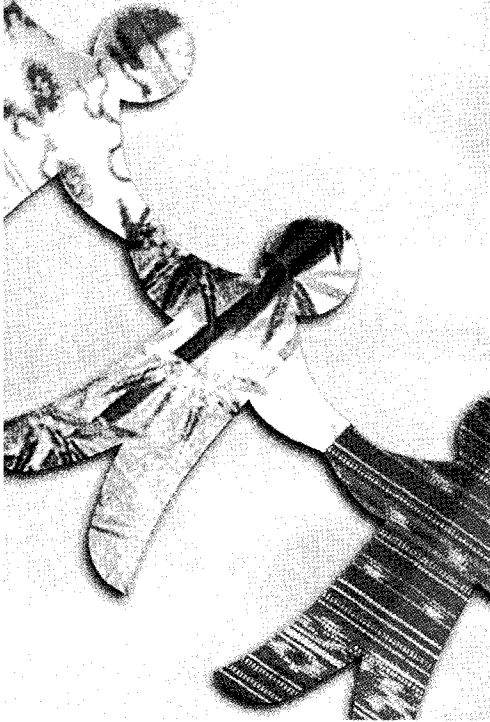
제1군:결핵 고위험, 고부담국가군
(High burden, High risk countries)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몽고, 파푸아뉴기니

제2군:결핵부담이 있으나 보건조직이



Partnerships for TB Control in the Western Pacific



잘 갖추어진 국가군
(Intermediate burden and
good health structure)

:한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브루
나이, 마카오,

제3군:총인구 백만미만인 도서국가군
(Pacific island countries)

:취지, 솔로몬군도, 괌, 팔라우,
마셜군도등 20개국

제4군:결핵부담이 낮은 국가군(Low
burden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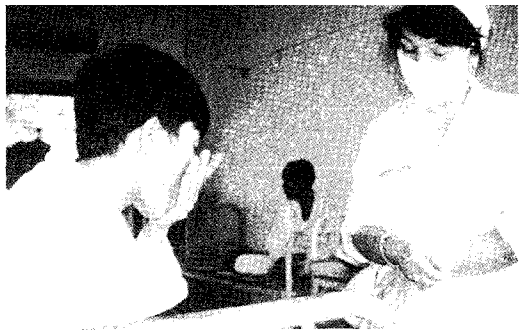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금년에는 회의개최에 앞서 세계보건기
구가 서태평양지역에서의 결핵퇴치에 대
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회의의 주요의제
를 미리 밝혔는데 이에 따라 매우 진지한
토의가 이루어졌기에 여기에 소개한다.

『오늘 중국 북경에서 서태평양지역에
서의 결핵근절을 위한 제2차 기술자문위
원회(TAG)가 개막되었다. 각 나라를 대
표하는 고위급 보건관료, 국가결핵관리
책임자, 국제결핵전문가 그밖에 국제원
조기구사절들 약 60명 이상이 3일에 걸
친 일정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여 이 지역
내 결핵퇴치를 위한 정치적 재정적 책임
을 강화할 것이다. 참가자들은 모두 중국
보건부 차관 인 따쿠이 박사의 환영을 받
았다.

결핵은 이 지역내 매우 빈도높은 사인
(死因)으로서 거의 세계 결핵의 30%가
이 지역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
일 1천명 이상이 이 지역에서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고 이들중 700명은 중국에서
발생하며 수백만명이 매년 결핵에 감염
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핵을 치료하지 않
으면 결핵에 걸린 사람의 50%가 사망하
게 된다.

결핵상황의 악화는 인류에 엄청난 비
극을 초래했으며 이 지역 국가들내의 경
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보
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인 오미



시게루 박사는 개막식에서 “결핵관리는 주요발전지표로서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전략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로 결핵은 빈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결핵신환자의 95%, 결핵사망자의 약 99%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지역내의 결핵퇴치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99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 사무처는 이 지역내에서의 “결핵위기”를 선언하였다.

10년 이내에 결핵유병률과 사망률을 각각 50% 낮춘다는 목표로 발족된 “결핵퇴치 특별위원회”는 이 지역내 결핵퇴치 운동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지역내 국가들의 국가결핵관리 프로그램은 결핵으로 인한 불필요한 죽음과 피해를 막기 위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세계결핵상황이 수년에 걸쳐 악화된 듯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권장 결핵퇴치 전략인 DOTS(복약확인 단계치료)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이고도 획기적인 발전들이 있었다. 한 예로 중국에서의 최근 결핵유병률 조사의 중간결과를 보면 세계은행이 지원한 결핵관리전략을 수용한

주들에서는 10년도 채 안되어 무려 38%의 결핵유병률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는 바로 7년 남짓한 기간동안에 DOTS를 시행한 결과인 것이다. “이 엄청난 쾌거는 바로 [10년내로 결핵유병률 50% 감소]라는 지역목표가 매우 야심찬 것이긴 하나 실현가능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오미 박사는 말했다.

이번 TAG회의에서는 지역내 결핵문제가 심각한 상위 7개국에서의 결핵관리진전 및 향후 계획 등이 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한 보다 강화된 상호협력,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강화등을 호소할 것이다. 품질이 우수한 결핵약제의 보급 및 보다 안정적인 약제공급시스템의 강화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2005년까지 DOTS의 전면실시”를 포함한 STOP TB의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면 재정적인 문제가 관건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나라들과 국제단체들로 하여금 지역내 결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촉구한다.』

